

목양칼럼

절임과 버무리

그 옛날, 겨울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분주하곤 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 때문이죠.
겨울나기 준비의 최고봉은 역시 김장김치를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식구 수에 따라 100포기 200포기, 또 그 이상을 담그게 됩니다.
잘 담근 김장 김치는 온 겨울을 든든하고 행복하게 해주었지요.
밥에는 물론, 칼국수, 수제비 같은 밀가루 음식에도 제격이었답니다.

김장김치를 만드는 전(全) 과정에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오가며 김장김치 만드는 것을 보면서 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배추 절임과 김장 속 버무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친 김장김치들이 장독 속에 들어가고 땅에 파묻혔다가
적절한 때에 꺼내져 한 포기씩 또는 반 포기씩 상위에 얼굴을 내밀게 됩니다.

겨울나기 김장김치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절임과 버무리입니다.
절임이란 배추로 더 이상 뻗뻗하지 않고 부들부들하게 만듭니다.
우리 각자가 배추 절임처럼 겸손해져야 합니다.
버무리란 여러 김치 속 재료들을 함께 섞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함께 너도나도 없이 어울려져야 합니다.

절임과 버무리가 잘 되면
인생 겨울나기 준비는 OK입니다.
이렇게 한 번 외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절여지고
우리는 버무리진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V. Son/RM (917)940-0596	천위희/CM (347)965-0343
전도사	교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이소영/새가족(347)610-5399		
	소유영/행정 (917)318-7030	최진식/ (646)887-7419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전진영/유치부 (267)476-2042
	평정은/유년부 (347)804-5366		
	이오스틴/초등부(631)617-1339	차평화/고등부,EEEP(703)819-8785	손요한/중국어교육부 (646)789-1118
직원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반주 / 임세현	반주 / 김정운 이송은	반주 / 송소영 나윤주
			반주 / 최미희



주후 2018년 12월 16일
제 44-50호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성국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김성국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20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송동울 장로 3부 / 임 정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고린도전서 10:11-13	사회자
찬양	CHOIR	만왕의 왕이 오셨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말세를 만난 우리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01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122 / 1, 4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삼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정길표 장로 4부 / 함용식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01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고린도전서 10:11-13	사회자
찬양 CHOIR	Sing! Noel 왕이신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말세를 만난 우리	김성국 목사
* 찬송 HYMN	122 / 1, 4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주일 저녁 예배

성탄 축하 찬양제

오후 4:00 (12/16/18)	사회: 이무근 장로
예배 선언	사회자
기도	이광훈 집사
성경봉독	사회자
누가복음 2:16-17	
말씀	김성국 목사
왕이오셨다 왕을전하사	

성탄 축하 찬양제
‘왕이오셨다 왕을전하사’

광고	사회자
찬송	115
축도	김성국 목사

수요 기도 예배

제 8기 제자 훈련 수료 예배

오후 8:00 (12/19/18)	사회: 홍승룡 장로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352
기도	조소영 집사
성경봉독	정민영 집사
이사야 49:18	

찬양	찬양대
말씀	김성국 목사

네 눈을 들어 사망을 보라

수료식	
수료증 수여/성경암송/헌신찬양	훈련자 일동
간중	송미진 집사
광고	사회자
찬송	가서 제자 삼으라
축도	김성국 목사

교회소식

12월 결실의 달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12/16(주) 성탄 축하 찬양제	12/19(수) 제자훈련 수료 예배	12/21(금) 양로원 방문
12/23(주) 성탄 주일	12/25(화) 성탄 축하 예배	12/26(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12/31(월) 송구영신 예배	1/1(화) 신년 하례 예배	1/2~4(수~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알림

- 오늘 QBC는 없습니다. QBC 시간에 교육부 각 부서 교사 기도회로 모입니다.
- ‘왕이 오셨다 왕을 전하사’ 성탄 축하 찬양제**가 오늘 오후 4:00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기도로 준비한 성탄 축하 찬양제에 함께 참석하셔서 성탄의 예수님께 영광돌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제를 마친 후에는 저녁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제 8기 제자 훈련 수료 예배**가 12/19(수) 수요 기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 양로원 위로 방문**을 12/21(금)에 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 출발 시간: 오전 8:50 - 롱아일랜드 요양원, 오후 1:50 - 유니온 양로원
- 고등부 겨울 수련회 안내** 1) 일시: 12/26~28(수~금) 2) 장소: Twin Pines
- 청년 대학부 겨울 수련회 안내** 1) 일시: 12/27~29(목~토) 2) 장소: Twin Pines
- Ainos 기초반 모집 안내** * 토요일/주일반(바이올린, 클라리넷, 플룻) * 문의: 김미연 집사, 최효진 권사
- 12/22(토) 토요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God's Will (다음주: 교역자)
- 가족기념 장학기금** 김동은 집사, 한선일 집사 김현지 청년

새가족

안전일 (청년선교 2Y2) 박진성 (청년선교 1Y2) 김예은 (청년대학 3Y1) 임재혁 (청년선교3Y2)

교우소식

- 필 사** 김석영 권사 (1F5)께서 인터넷 성경 쓰기 1회 하였습니다. 정근화 권사 (2F3)께서 인터넷 성경 쓰기 8회 하였습니다.
- 개업** 이은주 집사 (이현승 4WH1)께서 필라테스 스튜디오 'EJ Fit Studio'를 12/14 개업하였습니다. * 주소: 248-12 #2D Northen Blvd. * Tel: 833)693-5348
- 소천** 한철익 집사 (한희권 권사 4L3)의 부친 한준석 성도께서 12/2 소천 받으시어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최재홍 교우 (하정연 4F1)께서 12/12 소천 받으시어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금식기도

- 주** / 최성수 이숙녀 이양미 계대원
- 월** / 송창호 정수진 김효자 김은경 김동은 허민정 민미숙
- 화** / 우순우 박경우 윤자숙 남인화 김영희 석영지 민미숙
- 수** / 이사강 김수진 임석환 김순례 민미숙 박기자 정지원
- 목** / 신운영 소유영 함정순 정해성 민미숙 송경순
- 금** / 이희영 이경자 김은경 박경순 민미숙 정지원
- 토** / 조선제 신진숙 송창호 민미숙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본당

출석

1부 예배	284	러시아어 예배	50	영어부	42	중등부	62
2부 예배	364	청년 선교부	78	유아부	24	고등부	55
3부 예배	312	QBC	171	유치부	34	청년 대학부	32
4부 예배	139	새벽 예배	820	중국어 교육부	26	교회 학교 예배	439
영어 예배	170	수요 기도 예배	272	유년부	85	주일 낮 장년 예배	1736
중국어 예배	339	새가족 환영회	25	초등부	79	주일 낮 총계	2175

12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이무근 장로

현신기도	차상남 장로	최원일 장로	함용식 장로	남형욱 장로
책임권사	차동미 권사	박경우 권사	전광인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동순	이정훈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장지숙 정민영 허민정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장현미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김미권 전용력 전인자 송명남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박석미 한원희 허민정 심화숙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정사용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교포부/교포부 주일식사: 다비다(다음주: 루디아)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TV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렘(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제 72 문 :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 줍니까?

답 :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줍니다.

월- 사도신경 / 찬송가 350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행전 3:11-18

사람은 기적의 통로일 뿐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 주체를 베드로라고 생각해 그를 주목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며 자기 손을 통해 일어난 기적이 자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병자를 낫게 한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생명의 주' 를 죽인 장본인이 그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것임을 선포하며 부활의 증인 된 사명을 다합니다. 기적은 복음 전파의 도구입니다. 성도는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은 후 주님께 드러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 오직 주님께 주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 찬송가 254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행전 3:19-26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과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인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새로운 날이 임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과거와 현재의 죄악을 끊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물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된 새로운 날들을 감사하며 사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 찬송가 538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행전 4:1-4

어떤 박해와 고난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 나타난 첫 열매로 성도의 소망이자 미래입니다. 부활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부활 선포를 싫어해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그날에 믿는 남자의 수가 5천 명이 될 만큼 큰 부흥의 역사를 이어 가십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사탄은 늘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만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파되는 진리의 복음이 항상 승리합니다. 불신자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말해야 하는 진리는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 찬송가 93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행전 4:5-12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누구도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 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질문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답변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가 건강하게 뒀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분을 요긴한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의 절대 진리를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 찬송가 94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행전 4:13-22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알아보면서도 그가 성령의 지혜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당해 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어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를 확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로 무장해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 세상은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박해의 순간에도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복음 진리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진리 앞에서 "사람의 말을 따를지" "하나님 말씀을 따를지" 를 선택해야 합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용기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승리의 가정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 찬송가 500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행전 4:23-31

고난과 박해 상황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사도들은 박해받는 위기 상황에서 한마음으로 대주재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구약의 성취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들은 위협당하는 중에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은 모인 곳을 진동시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복음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에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일이며 전도자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연습합니다. 완고히 복음을 거부하는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승리하는 가정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